

광주 인공지능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가속

NEWS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반도체 설계기업 7곳 등 추가 협력...총 17개사 참여 (주)에임퓨처 광주지사 개소...기술교류·협력공간 마련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Fabless) 기업들이 잇따라 광주로 모이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인 인공지능(AI)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광주시는 12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국내외 유망 팹리스 기업 7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시와 협력 중인 팹리스 기업은 총 17곳으로 늘어났으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보스반도체, ㈜에이브글로벌, ㈜나노링크테크놀로지, 베리실리콘(VeriSilicon Inc.) 한국지사, 텐스토허(Tenstorrent) 코리아, ㈜

비트리, ㈜잇다반도체 등 7개사다. 이들 기업은 칩 설계뿐만 아니라 IP(반도체 설계 자산) 개발과 디자인하우스(반도체 제조 전 최적화 설계)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인 핵심 축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며,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전략의 실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역 기업과의 공동연구, 전문 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업 전반의 동반성장(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참여기업 대표들은 “광주시 인공지능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광주 실감콘텐츠큐브(GCC) MX스튜디오에서 열린 '광주 AI 팹리스 클러스터 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해 조인철 국회의원,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등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I) 및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적극 참여하고 기술적 지원과 협력으로 지역기업과 동반 성장을 실현하겠다”며 “광주 AI 인공

지능(AI) 반도체 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협약은 에이직랩과 에임퓨처를 시작으로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주체들이 광주에 집결한 의미

있는 성과이다”며 “광주는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인 'AX실증밸리' 사업 본격화를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인 AI 산업을 광주에서 확실히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팹리스 유치 2호 기업인 ㈜에임퓨처가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 광주지사를 이날 공식 개소했다. 광주지사는 공유 오피스 형태로 운영되며, 팹리스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개방형 거점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이뤄진 실질적 성과로, 지난 4월 에이직랩드 광주사무소 개소에 이어 팹리스 기업의 지역 정착이 가시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팹리스 기업 유치를 지속 확대하고, 기업 간 협업 생태계와 테스트베드(시험무대)를 강화해 AI 반도체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갈 방침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AI 실증도시 광주, 팹리스 산업 육성 최적”

‘AI 팹리스 협력 컨퍼런스’ 개최...국내외 기업·전문가 참여 기술협력·성장전략 공유...클러스터 조성 협력방안 등 논의

국내외 주요 팹리스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와 실증 기반, 실제 서비스 적용 환경을 갖춘 ‘AI 실증도시’로서의 강점을 지닌 광주가 팹리스 산업 육성의 최적지라고 평가했다.

광주시는 12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 MX스튜디오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고 광주를 중심으로 한 팹리스(Fabless)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AI 팹리스 클러스터 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조인철·정진욱 국회의원,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강현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연구본부장과 함께 국내외 유망 팹리스 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국내외 메이저 팹리스와 반

도체 IP 벤더(공급업체)들이 대거 참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컨퍼런스는 국가AI데이터센터, 실증장비 77종, AI반도체 검증체계 등이 갖춰진 광주지역 첨단 기반시설의 산업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간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 단장이 좌장을 맡은 주제발표에서는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이 ‘AI 반도체 산업현황 및 전망’을 통해 글로벌 경쟁 전략을 소개하고,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의 성공 비전을 함께 제시했다.

강현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연구본부장은 ‘광주 AI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미래 발전 전략’을 발표하며 온디바이스 AI 전주기 지원체계,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했다.

이러진 패널 토의에서는 박준규 ㈜에이디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신동주 ㈜모빌린트 대표이사, 김정욱 ㈜딥엑스 부사장, 김창수 ㈜에임퓨처 대표이사, 오유섭 베리실리콘 Inc. 한국지사장 등 국내외 주요 팹리스 기업과 IP벤더,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참여해 가치사슬(밸류체인) 협력 방안과 기술 동향, 인재 양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패널들은 “팹리스 산업은 IP, 디자인하우스, 제조, 검증 환경까지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며 “광주는 AI 데이터센터와 실증 기반, 실제 서비스 적용 환경을 갖춘 ‘AI 실증도시’로서의 강점을 지닌 최적의 입지”라고 평가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AI 국가 시범도시로,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무한히 성장할 것이다”며 “광주는 긴 시간 동안 인프라 구축과 인재양성, 기업 유치를 통해 AI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온 만큼 기업 IP, 디자인하우스, 제조, 실증, 인재까지 모든 연결고리를 광주에서 풀이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기업의 성공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수목가’ 버전 투표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은 오는 17일까지 8일간 인공지능(AI)이 밴드와 발라드로 제작한 두 가지 버전의 ‘수목가’ 중 하나를 대중 투표로 선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를 바라는 국민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공식 유튜브 채널을 구독한 뒤, 인공지능이 제작한 ‘수목가’의 밴드 버

전과 발라드 버전 두 곡을 모두 감상하고, 이벤트페이지(<https://naver.me/F5aQ2mZO>)에서 마음에 드는 버전에 투표하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아이스크림과 커피 기프티콘이 제공된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전통 수목화의 현대적 해석을 대중과 함께 만드는 참여형 이벤트로, 인공지능과 예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시도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형수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장은 “인공지능과 전통 예술의 만남이라는 색다른 시도에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전통 수목에 대한 흥미와 애정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투표를 통해 선정된 주제는 비엔날레 홍보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광주·전남 출신 포진

지역 공약 국정과제 반영·현안 해결 ‘청신호’

부위원장에 ‘무안’ 김용범 정책실장 임명 ‘고흥’ 박홍근·‘보성’ 이해식 등 분과장 중책

이재명 정부의 5년 밑그림을 그리며 사실상 인수위 기능을 할 국정기획위원회에 호남권 인사들이 합류, 지역 대선 공약과 주요 현안 정부 국정과제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기회를 맞게 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60일간 이재명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는 16일 서울 광화문 인근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정기획위를 이끌 총사령관은 이대통령이 지난 5일 임명한 이한주 위원장이다.

국정기획위는 3명의 부위원장과 경제·사회·정치행정·외교안보 등 7개 전문 분과로 이뤄진다.

먼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부위원장을 맡아 당·정·청 간 소통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김 실장은 무안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를 나왔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북 전주 출신의 3선(서울 강서구을) 국회의원이다.

7개 분과장에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 최민희 민주당 의원(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흥현의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이 선임됐다.

박홍근 기획분과 분과장은 고흥 출신 4선 의원(서울 중랑구을)으로, 분과별 업무를 조정하며 국정기획위원회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보성출신의 이해식 의원은 정치행정 분과를 이끌게 됐다. 현 서울 강동구를 지역구 의원인 이 의원은 강동구청장을 지내 지방자치 실무에 정통하다. 지난 대선에선 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활약했다. 이춘석 경제2과 분과장은 전북 익산출신 4선 의원(익산시 갑)이다.



김용범



박홍근



이해식

정치권은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호남출신 인사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지역 공약과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꾸려질 위원이나 실무진 인선에도 지역 인재를 얼마나 참여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원들로는 국회의원이나 학자, 관료 등이 대거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분과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국소실 국무1차장이 맡는다. 실무위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이 파견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담장, 디자인에 취하라!

— 벽돌담의 품격을 더하겠습니다

- ✓ 자연석같은 전통 사파식문양 풍경벽물
- ✓ 세계최초 안골조립식 문자블럭 '세종벽물'
- ✓ 조적, 돌담 등 별도의 접 자재가 필요없이 셀프시공이 가능한 '키어블럭'
- ✓ 담장 조정 각종 연속인테리어블럭

담장은 예술이다

신제품

키어블럭(조립식조경용) PGT국제특허출원

풍경벽물배형 담장

벤스형 담장

한식기억형 담장

세종블럭 담장

키어블럭

NAVER 뉴정원산업

본사공장 전남 완순군 이양면 막포로862(동명리 629)
Tel. 061)373-9566-7 Homepage. www.jtbl.co.kr